

근로빈곤층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과 가족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김 선 미(광주대 교수)

1. 서론

기혼여성 경제활동참여가 늘자 맞벌이 가구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2009년에 40.1%에 달한다(통계청.2009).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의 성별분업 역할 구도의 일인소득자 모델은 이인소득자 모델로 바뀌어야 했고, 일과 가정을 어떻게 양립해 나갈 것인가가 가정과 개인의 삶의 질에서 중요해졌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서 감지되는 것은 주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로 인한 이중부담의 해소이고 일-가정양립 논의도 가정에서는 남녀의 가사의 분담, 일터에서는 기혼여성의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단축근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활용 등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 최근 일터의 유연성이나 육아휴직제도에 남성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현장에서는 주로 여성용 복지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에 따라 오히려 여성들의 활용 기피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첫째, 일과 가정 두 영역간 상호작용과 전이에 관심을 둔 연구, 둘째, 여성의 일과 가족 역할간 갈등과 이중역할부담을 여성관점에서 논의한 연구, 셋째, 남성의 일-가정양립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장시간 노동과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남성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을 논의한 연구, 넷째, 일-가정 실태와 정책에 관한 연구로 대별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구조적 맥락에 근거한 한국적 정책모델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연구가 드물다. 이 연구는 자녀 양육기 맞벌이 가정을 단위로 하여 일상적인 삶 속의 협상과 조정과정을 다루어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녀 양육기 맞벌이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기술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요구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가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구조적 상황과 구체적인 맥락을 포착하는데 유리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여섯 가정의 열 두 명의 근로자를 심층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서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며, 참여자들이 처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례의 맥락이나 현장을 정확히 기술하는 것에 의해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그림을 제공할 수 있다. 질적 사례연구 방법은 개별 맞벌이 가정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일-가정생활의 다양함

을 기술하고 분석하기에 적절하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자녀양육기 맞벌이 가정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자녀양육기 맞벌이 가정은 일과 가정생활을 어떻게 조정해 가는가?

2) 연구참여자

이 연구에는 맞벌이 가정 일-생활연구의 일환으로 접촉 조사한 서울 경기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의 남녀 근로자 24명 가운데, 광주시에 거주하는 남녀 근로자 각 6명 총 12명의 연구참여자가 있다. 중산층 맞벌이 가정 두 사례와 근로빈곤층 네 가정의 사례를 포함하였다. 조사는 2012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수행하였고 가정단위 분석을 위해 부부를 모두 심층면접하였다.

다양한 사례를 표현하기 위해 최대편차(maximum variation) 표본 추출전략을 이용하여 연구참여 가정을 선정하였다. 연령과 근무형태, 근무시간, 직종을 고려하였다. 다만 자녀 양육기의 일-가정 양립을 집중해서 보고자 했기 때문에 반드시 초등학교이하 자녀를 한 명 이상 가진 경우로 제한하였다. 결국 정규직 부부 한 사례와 정규직-비정규직 부부 세 사례와 자영업자 부부 두 사례가 주요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3) 자료수집

Yin(2011)이 제시한 사례연구방법의 일반적인 세 가지 자료수집 방법 가운데 심층면접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심층면접으로 결혼전후 개인의 노동생애사와 결혼 생활 동안 일상적인 가정생활사를 구술하게 하였고, 가정과 일의 의미,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적 지원네트워크에 관해 질문하였다.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서는 결혼기간, 가족사항, 본인과 배우자의 직장과 고용형태 및 근무기간, 직업스트레스 정도와 몰입정도, 근로시간 월평균소득, 자녀의 성별과 연령, 거주형태를 표에 적게 하였다. 또한 가사분담방식과 주요 생계부양자, 일-가정 중요도,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월평균소득에 대한 평가와 희망 소득,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생활비지출상황도 조사하였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일터 또는 가정에서 면접하여 참여관찰 효과도 얻고자 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Creswell(2010)이 제시한 질적 사례 연구의 독특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는데, 1차 코딩을 실시하여 사례와 그 맥락을 기술한 후, 주제나 패턴구성을 위한 범주화된 집합을 제시하였다. 주제들을 찾고자 각 사례 내 분석(within-case analysis)을, 모든 사례에 공통적인 주제를 찾기 위해 사례 간 분석(cross-ca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Cresswell, 2010:339). 사례연구에서 분석은 사례나

현장을 세세하게 묘사하여 독자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자 사례와 맥락에 대한 폭넓은 기술을 포함한다.

끝으로 자료 분석결과를 '평가 체크리스트(Evaluation Checklist)'에 따라 평가(Stake, 1995:131)하였다. 즉 연구자의 역할과 관점이 분명한지, 관찰과 해석이 다원화되었는지, 다양한 맥락에 주의를 기울였는지, 독자에게 대리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였다.

연구의 진실성을 위해, 부부를 개별 심층면담하여 한 가정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삼각검증을 위해 동료검증을 수행하였다. 세 명의 동료와 심층면접 전사자료를 읽고 각기 요약하고 중점을 잡아 함께 토의하였으며, 잠정적인 결론에 대한 비평을 교환하여 주관적인 오류를 수정하였다(Lincoln&Guba,1985:243).

3. 연구결과

연구자는 각 사례의 주제를 위한 사례 내 분석을 통해 여섯 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 가정들이 맞벌이가정으로서 일-가정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와 관련된 주제로 첫째, '일, 계속하기' 둘째, '자녀와의 별거', 셋째, '자영업파트너로서의 아내'를 도출하였다.

'일, 계속하기' 주제에는 생계형 돈벌이를 위한 취업이 아니라 뚜렷한 직업정체성, 곧 일을 통한 자기성취를 중시하는 아내와 안정된 직업을 가진 남편으로 된 두 가정을 소개하였다. '자녀와의 별거' 주제에는 생계형 돈벌이를 위한 아내의 취업과 친족체계에 의존한 자녀양육을 위해 자녀와 별거한 두 가정을 소개하였다. '자영업 파트너로서의 아내' 주제에는 굴비가게와 굴비노점상을 겸업하면서 아내가 회계일을 맡는 가정과 학습지 교사일을 남편이 하면서 주간에 아내가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가정을 소개하였다.

또한 사례 간 분석을 통해서도 유사점과 차이점을 드러내는 주제를 도출하였다. 사례 간 유사점은 첫째, 일 우선 생활구조 둘째, 가정단위 균형과 개인의 균형간 모순, 사례간 차이점을 드러내는 주제로는 첫째,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와 책임 둘째, 양육방식이다.

1) 일, 계속하기

사례 가정 1 : 부인의 뚜렷한 직업정체성, 양육의 어려움과 출산 연기

이 가정은 좋은 사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민간단체에 입사한 두 사람이 결혼하여 이루었다. 아내는 현재 38세, 남편은 37세이고 아내는 출산하고 3개월 출산휴가 사용 후 아이는 9개월간 할아버지가 돌보았고 그 후 민간 베이비시터가 키우다가 만2세에 영아전담어린이집에 맡겼다. 아이가 만4세가 되자 부모직장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어린이집에 맡겨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키웠다. 아내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일을 그만 둘까도 고민했으나 지역아동센터가 열쇠가 되었고, 직장 부근이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곳으로 이사했다(35평 아파트).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는 학교 후, 지역아동센터에서 영어와 한문을 주로 한다. 그러나 이용하는 아이들의 계층이 달라 계속보내기가 싫고, 또 평소에는 간식과 저녁식사를 주지만 방학 때에는 점심과 저녁식사를 주기 때문에 간식이

걱정되어, 3학년때부터는 학원으로 돌릴까 생각한다고 한다.

아내는 뚜렷한 직업정체성을 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아 지금 직장(대기업 대리, 월 300만원)으로 옮겼고 기업창업을 목표로 경영학 박사과정에 다닌다. 화요일 오후 3시부터 10시, 수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에 가는 대신 월 1회 토요일에 대체 근무한다. 아내가 평일 저녁시간과 토요일에 자녀 숙제를 지도한다. 양쪽 어머니(59세 63세)가 모두 식당을 운영하는데, 어머니에게 월 100만원씩 제공가능한 상황이 되면 일을 그만 두게 한 후,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둘째 아이 낳을 희망을 가지고 있다.

남편은 현재 구립 생활체육센터의 상담팀장(월 250만원)이며, 주5일 근무와 토요일근무를 하는데 "아내가 포기했다."고 할 정도로 야간 회식·술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경우-이 잦다. 남편은 주로 아내가 수업에 참여하는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자녀를 돌보는데 낮에도 가끔 자녀를 챙기러 집에 들른다고 한다. 매일 늦은 저녁 몇 분이라도 아이와 운동을 고수하고 아이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한다.

<아내, 은퇴 고려>

아내: 아, ‘그만 둘까’ 생각, 예전에는 초등학교 보내기 전에는 ‘그만둬야 되지 않나’ 생각했어요...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이 빨리 오잖아요. 그리고 방학 때 애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지역아동센터라는 걸 알아가지고 보내니까 망정인데, 계속 보내기는 힘들겠죠. 지역아동센터를.

<둘째 출산연기>

아내: 예, 시민단체에 있을 때 급여 100 얼마 받아서 아줌마한테 맡기고, 기저귀 사주고, 분유사주면 남는 게 없잖아요. 진짜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임신 때도 먹고 싶은 것도 못 사먹고.....그니까 둘 못 낳는다니까요. 아이는 이제. 그래서 저희 엄마가 오셔야. 그런데 저희 남편이 못 낳는다고 하더라구요. 육아 부담 때문에. 본인이 이제 나눠서 키워야 하니까. 차마 못한다고는 못하고 그래서 저희남편이 고집해서 둘째는 안 낳았었던 거예요. 더.

남편: 제가 힘들어요. 저희 집사람이 더 힘들 텐데, 사회생활하는 그 뭐지 직장인 입장에서 아 지금 저희가 아들 하나 키우는데도 직장생활에 양육문제에 그걸 감당을 하려면 많이 벅찰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수입이 많고 적고는 관계가 없죠.

사례 가정 2 : 전업주부로 경력단절, 재취업 성공, 남편의 유연한 일 스케줄

이 가정은 아내가 38세 남편이 45세로, 14년 결혼 기간 중 아내가 12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다 36세에 재취업하였다. 회계사무소 경리일을 하다가 중매결혼 후, 습관성 유산을 3회나 경험한 아내는 2002년, 2003년에 아들과 딸을 낳고 줄곧 전업주부로 지냈다. 물론 그 동안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사이버교육을 통해 취득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월소득 150만원 계약직 민간단체 종사자로 재취업하여 주5일 근무하고 있다. 남편이 자녀의 등하교 시간을 맡아주기 때문에 통근거리가 멀지만 시간압박은 크지 않고 퇴근 후 쇼핑을 가기도 한다.

남편은 소방공무원으로 월 340만원 수입을 벌고, 24평 아파트도 있어서 아내는 '생계부양'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니란다. 자녀가 1,2학년일 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취업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유연한 근무스케줄 덕분이다. 남편은 일년 내내 이틀 주간, 이틀 야간, 이틀 비번으로 순환근무를 한다. 아내의 주5일 근무와 남편의 3교대 근무로 근무시간이 엇갈리는 것이 이들 부부의 친밀감 형성에는 장애가 되지만 자녀양육에는 도움이 된다. 남편은 혼자 있는 시간에 종교활동이나 동료들과 취미생활을 하고, 청소와 자녀 식사챙겨주기, 자녀 등하교 및 숙제지도 역할을 수행한다. 가사노동은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데 대해 남편은 불만이 없다. 그 동안 취업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 지내온 아내에 대한 일종의 교대의식이다.

학업성취를 강조하는 아내는 사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데 매월 53만원의 사교육비 지출은 부부가 모두 부담스러워 한다. 주요 양육책임자인 남편은 사교육시간 이외에 컴퓨터게임에 빠져있거나 TV시청에 몰두하는 자녀를 자주 보는 편이어서 사교육에 의존하려는 아내를 비난하고, 자녀들의 자기주도 학습 태도 형성을 소망한다. 엄마의 자녀를 돌보는 활동-영어공부와 도서관 가기-은 주말에 집중되어 있다.

<아내, 재취업>

아내: 그니까 애 낳고는 집에서 쉬면서 알바로 보육교사.....아가씨 때부터 결혼해도 평생 나 일할라고 생각했어요. 원래가. 생각이. 그랬는데 애가 잘못되니까(유산) 어쩔 수 없이 쉬었는데 항상 마음 속에 좀 키우면 나가야 돼. 키워 놓고 나가야 돼 그런 게 있었죠. 키워 놓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10년 가 버렸는데.....친구가 그 즈음에 직장을 구하는데 엄청 힘들고 자리가 없다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막 줘 가지고. 자리가 없다고, 갈 데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두려움에 나도 이제 갈 데 없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래 가지고 두려움에 이력서를 냈는데 여기로.....그래도 좀 제가 하려는 의지가 좀 강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뽑혀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죠. 친구의 불안 심리가. 갈 데 없다. 이제 나이도 먹고. 그거 때문에. 아니 근데 항상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 또 데리고 있어 보니까 그거에 또 계속 얼른 높고 못나오겠더라구요. 또 마음이...큰애가 1학년 잘 적응하길래 둘째도 잘 적응하겠지 하고 그냥 이력서를 내버렸죠. 근데 조금 둘째한테 미안하더라구요. 학교 3월달 한 달 다니고 나니까 내가 취직하고 나와 버려가지고 좀 미안했어요.

<남편, 유연한 스케줄>

아내: 물론 신랑이 3교대라서 일을 나올 수 있었는데 3교대 아니었으면 일도 못 나왔죠. 마음이 불안해 가지고.....

남편: 그 전에는 이제 격일제 근무여서 그때는 좀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3교대 근무라서 이제 좀 더 원활해진 것 같더라고요...그러니까 (비번일 때는) 제가 집안 일 그 때 많이 하죠...예, 혼자만의 등산도 가 지고(가게 되고).

<남편의 자녀들보기>

아내: 막 나왔을 때는 1년간은 마음이 진짜 막 마음이 불안했는데 지금은 애들이 성실해서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랑의 도움이 큰 것 같아요. 신랑 아니면 지금도.

남편: 비번일 때는 집안 일, 청소, 설거지 할 거 있으면 하고, 빨래하고, 애들 숙제 같은 거 좀 봐주거나 챙겨주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저 운동..... 학교의 학부모 상담 같은 거 몇 번 가거든요. 집사람이 직장 나가다 보니까 내가 비(번), 비(번)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 비, 비 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아버님이 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가 잘못되겠습니까.” 하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2) 자녀와의 별거

사례 가정 3. 퇴근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비정규직 아내, 주기적으로 야근하는 생산직 남편
결혼 기간 8년째인 이 가정은 아내가 35세, 남편이 37세이다. 아내가 오전 여덟시 반 출근하면서 6세 남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섯시 반에 찾아와 잠들 때까지 맡아 키운다. 아내는 지금 임신 중인데 그 사실을 직장에 숨기고 있다. 아내는 미혼시절 120-140만원 급여를 받던 사무직 종사자였으나, 첫 자녀임신으로 2007년 30세에 퇴직하고 2년간 아이를 키운 후 자녀를 김제 친정에 맡기고 재취업하였다.

지금 직장도 평소 자정까지 야근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아이는 엄마가 직접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친정어머니와 함께 자녀를 돌아오게 하여 1년간 야근하면서 자녀와 동거하였으나, 친정아버지 병환으로 친정어머니가 귀가해야 했다. 근무유연성이 전혀 없는 남편을 대신하여 혼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급여삭감을 감수하고(현재 100만원 월급) 하루 8시간 근무로 시간을 조정했다. 임신사실이 알려지면 바로 퇴사해야 하므로 최대한 알리지 않고 '버티고'있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7개월이 되면 퇴사할 생각이다.

남편은 아내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대기업 협력업체에 사무직으로 취업하여 지금 하루 12시간씩 주 5일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순환근무(월 2회 토요일 오전 근무, 월 2회 토요일 전일제 근무, 월1회 토요일 야간근무)하여 일주일에 총 64시간 일하며 200만원 월급을 받는 과장이다. 그 동안 부모로부터 무이자대출과 내핍(남편이 기숙사에 살면서 수입전액을 저금하고 아내는 생활비 거의 쓰지 않기)으로 2억5천하는 34평의 최신형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6천만원의 대출이 있어 겨울에 난방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생활비를 최소화한다. 이 가정이 아내의 취업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소득확보이다. 남편이 40대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지금 직장에 다닐 수 있을지, 그 전에 그만 두게 될지 불투명한 이 가정은 최대한 소득을 벌어들여야 하고, 김은정씨는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되고자 보육교사자격증을 따 놓았다.

<자녀와의 별거>

아내: 그냥 남편한테 딱 맡기는 거 자체를, 좀 약간 무섭다고 해야 하나, 거부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좀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 시설이나 이런 데를.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

이 티도 안 나는 그냥 엄마한테 한 달 용돈드리면서.

남편: 가족들이랑 친척들이 다 전라북도에 거주를 했고요. 저하고 둘이만 달랑 광주에 오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종일반에 맡기기에는 애가 어렸고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그쪽에 맡겼죠.....앞으로는 애하고 더 해 주고 싶은데 얘기도 많이 해 주고 싶고요. 아직 그런 거를 잘못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가 외할머니 집에서 크는 바람에 같이 살게 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는 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해 주기만 한 거예요.

<아내, 해고 불안>

아내: 예,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어렵죠. 그래서 (본인의 임신 사실을) 숨기잖아요. 말을 못하고 있어요. 여자들 중에 누가 출산휴가 받은 여자도 없고. 제가 지금 여러모로 첫 타자인데, 지금 어떻게 회사에서 나올지를 몰라가지고. 바로 “실업급여 줄 테니 나가줘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만두더라도 끝까지는 다녀보려고. 지금 버티고 있기는 한데, 버티는 걸 떠나서 아무든 최대 고민이 회사 그만둔 이후예요.

남편: (아내가 임신) 15주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회사에 아직 말을 안 해 가지고...예, 눈치주기도 하고 나가라그럴 까봐. 출산휴가는 이제 다 준다고는 말은 하는데 제조업이고 또 약간 그래 가지고 좀 있으면 배불러오면 다 티 나긴 할 건데. 그냥. 출산휴가 준다고 말은 해요. 또 줄 것 같기도 한데. 또 출산휴가 받고 난 이후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 가지고 우선은 그냥 숨기고...

<소비생활, 내핍>

아내: 이제 저는 많이 얹쓰니까. 한 달에 생활비를 20(만원)도 안 쓰는 것 같은데...기껏해야 정말 가끔 화장품 떨어지면 몇 개월에 한 번씩 화장품 사는 정도고, 10만 원도 채 안 쓰는 때도 많아요.

아내: 1월 달에 이사해가지고. 1월 달에 처음 살았는데, 관리비가 30(만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제가 집 욕심 없다고 했잖아요. “나 못 산다고, 이렇게는 도저히 우리 형편에도 맞지 않고, 이사 가야겠다”고 그랬어요. 그 뒤로 보일러 끄고, 물 절세하고, 샤워할 때 한꺼번에 하고, 세탁기 절대 잘 안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줄인 거예요. 와, 못살겠어요. 못살겠어. 마음에 너무 안 들어, 관리비가. (신발하고 옷 같은 건) 그거는 거의 안사고. 사긴 사는데, 두세 달에 한 번씩이나 살까 하고, 거의 안 사고, 또 인터넷으로 싼 거 1만 원 짜리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의류 신발은...외식문화도 거의 없어요.

사례 가정 4. 정규직 아내와 돈 못 버는 남편의 영유아 두 자녀 키우기

이 가정은 아내 37세, 남편 39세 부부가 결혼한지 7년차로, 5세/2세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 정규직 13년째, 주 40시간 근무하여 월 190만원 받는 아내가 주 부양자이다. 고시공부를 하던 남편은 30대 중반 첫 아이가 태어난 후, 돈 벌이를 위해 공부를 그만 두었으나 대학을 졸업한 후 7년간의

공백으로 취업이 어려워 2년간 고용노동청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비정규직)으로 월 1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지금은 결혼이주여성으로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에서 90만원의 급여를 받지만 급여, 비전, 업무에 불만이 크다.

아내와 남편 모두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말 휴무가 뚜렷하게 확보되는 이 가정에서는 두 자녀 모두 할머니(61세)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데려다가 키우고 주말에는 부부가 자녀를 돌본다. 어머니가 고시공부를 하는 아들대신 그리고 주부양자인 며느리의 소득활동 지속을 위해 아이들을 키우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아이들을 일요일에 데려다주고 금요일에 데려오는 일은 남편이 도맡아 한다. 평일 주간에 할머니는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 키운다. 평일 아침에는 부부가 함께 수영을 하고 출근한다.

아내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이지만 주 부양자로서 소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다른 취업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기에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 직장은 내부규정에 의해 만 3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 출산지역에서 그대로 3년간 지체하고 지청발령을 내지 않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이용하고 있는데 막내가 만 4세가 되는 2년 후에는 지청으로 가야 한다. 원거리발령이 나면 무보수로 시어머니의 양육도움을 받는 지금 체계가 무너진다. 이 도시로부터 최단거리 지청에 발령이 나고, 근무지까지 출퇴근거리가 최단거리인 곳으로 이 도시 내에서 이사하여 지금 체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아들만 낳을 수 있다면 셋째 아이를 출산해 볼까도 생각 중이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 후 3년을 이사하지 않아도 된다.

<아내, 발령걱정>

아내: 2년 후에는 분명히 가야 되요. 왜냐 하면 만 3년이 지나 버리거든요. 우리 애기가.

처음 규정에. 우리 광주 청 규정. 내부적으로 만든 거죠 적어도 만 3세까지는 엄마가 옆에 (있어줄 수 있도록). 이제 여직원들보면 이번에도 발령이 난 직원들 보면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하는 많이 경우가 있더라구요. 애기들 땀에.

아내: 주중에 한 번 올라와도 굉장히 힘들어야 해요. 애기들이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엄마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도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애가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 자녀와 아내에 대한 미안함>

남편: 저희 어머니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애들이 크면서 활동양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두 명이 다 보니까 좀 더 힘들어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도움을 많이 드려야 하는데 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글고 양쪽 집안 어르신들한테도 글쎄. 또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3) 자영업 파트너로서 아내

사례 가정 5. 자기만의 일을 하지 못 하고 굴비가게 도소매점 경리 노릇

결혼하자마자 연년생을 출산한 아내는 미혼시절 낮에는 건설회사 회계일을 하고 밤에는 4년제 대학에서 공부하였다. 지금 41세인 아내, 40세인 남편은 13년간 결혼생활을 해 왔다. 결혼 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집에 붙은 가게에서 자영업하는 남편의 보조자 역할을 3년간 하다가 셋째 아이를 낳고는 전업주부가 되었다. 2년제 대학을 졸업한 남편은 결혼 전 인쇄영업 2년을 시작으로 결혼 후 공장영업과 가구점을 경영하였다. 가구점을 하다가 7-8천만원의 빚을 지고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는데, 폐가로 이사했고 창문이 없어 아이들이 자꾸 질병을 앓았으나 병원비 보조와 희망통장 가입 혜택을 얻었다. 그 후 남편의 노점상은 빚을 갚고자 최선을 다한 기간이었는데, 전라도지역 5일장을 2.5톤 트럭을 몰며 신발과 선글라스 판매 2년간, 전국을 돌며 쥐포와 오징어 판매 3년간 하면서 짬질방과 여인숙 생활을 하였다. 그 후 굴비노점상을 시작하였고, 2011년 자영업자를 상대로 신용보증재단에서 10만원 보증금에 1,000만원을 대출받고 처남에게서 1,000만원을 대출받아 굴비 도소매점을 개점하였다. 최근 부채를 탕감하였고, 희망통장이 끝나는 시점에서 부부가 모두 일 해야 하는 조건부 수급권자로서 탈수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가정은 세 아이(남,13세 여,12세 남,9세)를 키우는데, 큰 애와 막내가 ADHD를 앓고 있다. 세 자녀의 양육은 줄곧 동거해온 시어머니와 아내가 맡아왔고, 지난 해 문을 연 굴비가게 일을 돕기 위해 유치원교사출신 아이돌보미(전단지 통해 알게 됨)에게 월, 수, 일요일에 각각 4-4-2시간씩 아이 셋 모두 보낸다. 온전한 아이만 태권도 학원에 간다. 그러나 토요일에 학교가 쉬게 되자 지금 이 가정은 아이돌보는 문제로 "우왕좌왕"하면서 협소한 가게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도 한다. 아이들을 집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을 목표로 토요일 오후에 노점상에서 돌아오는 남편과 가게 일을 교대하고 아이들과 동네 한 바퀴 도는 일과 일요일에 교회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일이 가족휴식시간이다.

아내는 아이들을 등교시킨 직후, 굴비가게로 나가 소매상들에게 납품해주고 하루 한 두 건 소매도 하지만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고 한다. 아내는 주당 48시간 정도, 남편은 주당 60시간 정도 일하지만 아내는 맞벌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출퇴근이 있는 '자기 일을 하는 그럴듯한 직장'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아내는 자신의 기여분이 월 30만원이라고 하고, 남편은 경리일을 해 주기 때문에 아내의 기여분이 월 100만원은 된다고 한다. 이 가정은 지금 월 300만원 정도 벌고 있는데 450만원 정도를 벌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살고 있는 집도 아내 오빠가 소유한 아파트 상가 2층이다.

<아내, 좋은 직장에 대한 염원>

아내: (친오빠가) 공사 다니거든요. 항상 오빠는 삶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먼 미래를 생각하고 자아성취를 잘해야 된다고 책을 사주고 자기도 읽고 신문스크랩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살아가는 스타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저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 하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내: 저도 정규대학을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실은 아까 그거 있잖아요. 내 직장을 갖고

내 주장을 갖고 평등한 삶을 원하죠. 평등. 근데 내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내 자
아성찰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풀린다.

<남편의 의지>

남편: 저는 지금은 머리가 굳어져서 그러는데 애 엄마테 그랬어요. 나는 영화를 찍으면서
살았다. 결혼 시작하기 전에 그랬어요. 정말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산 것 같아요. 꼭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게 아니라 좀 생각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남들 안 해 본 걸
많이 해봤어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예요. 100% 중의 1%가 빛이라면 저
는 그 1%를 보려고 해요. 제가 상황이 좋아서 지금 가게를 갖고 있는 게 아니예요.
제가 계속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된 것이지.....사지 멀쩡하고 죽겠다
죽겠다 그런 사람은 정말 마음다짐이 안 된 사람이예요.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사지 멀쩡하잖아요. 저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남편: 경찰, 군(郡)에서 산 사설경호원, 군청, 마을청년회, 헌병대 한 다섯 군데서 합동단속
을 해요. 근데 그 사이를 뚫고 장사를 하는 것이 재밌어요.

<아이돌보미에 대한 감사>

아내: 그 당시에도 (아이돌보미가) 있었다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을 수 있겠다.

아내: 제가 왜 매일 보내냐면 이 선생님이 잘해 주세요. 교육경력이 있으세요. 어떻게. 이
렇게 잘해 줘서 우리 꼬맹이가 많이 힘든데도 그걸 이해하시고 좀 끌어오시더라고
요. 제가 부모가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해 주실 수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돌보미
선생님 이름이 000선생님인데 그런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아마 몇 달 가게 나
오다가 직원을 쓰던지 영 아니면 창고형태로 바꾸던지 그러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례 가정 6. “망해가는 피자가게”, 비전문적 영업

고졸인 아내(26세)는 회사에서 경리로 4년간 일 해 오다가 대졸인 남편(33세)을 직장에서 만나
결혼하였고 지금은 각각 40세와 46세가 되었다. 아내는 둘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한 직장에 근무하
였으나 "아들 둘을 가진 30대 아줌마가 회사일을 하기 힘들었다. 회사에서는 더 많은 일을 요구했고
집에 가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부담이 심해" 일을 그만 두었다. 남편은 결혼 직후 퇴사하여 학습
지(대교 눈높이)교사로 지금까지 13년 동안 근무하였다. 12세, 10세 두 남자아이를 초등학교 입학으
로 시내에 이사 오기 전까지는 전원주택에서 함께 살거나 근처에 살던 친정엄마가 돌봐주어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자녀 돌보는데서 비교적 자유로운 이 가정의 아내는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에 6년간 다녔다. 그러나 신입사원 때와 달리 자신감을
잃고 영업이 어렵다고 느끼면서 업무스트레스와 상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그만 두었다.

자영업을 꿈꾸어 온 남편으로 하여금 수입이 확실한 학습지 교사일을 계속해서 주요 일로 삼게
하고, 아내가 대신하여 2년 전 피자가게를 열어 주요 책임자로서 운영하고 있다. 아내는 오전에 가
사노동을 하고 12시경 피자가게를 열어 주중에는 저녁 10시까지 주말에는 12시까지 일하는데, 아이

들이 자유롭게 가게에 들러 숙제도 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점이지만 저녁 시간에 집에 부모없이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지 염려한다. 남편은 오전에 휴식을 취하고 12시경 학습지 교사로서 일을 시작하여 저녁 10시까지 활동하다가 10시 이후 아내와 교대하고 12시에 문을 닫는데, 피자가게로부터 얻는 월수입은 거의 없고, 부부의 총 근로시간은 아내는 80시간, 남편은 86시간 정도라고 한다. 권리금만 받는다면 피자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32평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 것이 아내의 희망이다.

이 가정이 피자가게를 시작한 후로 휴무일이 없고 가족여가 시간이 없다. 단독주택 2층 독채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내고 산다. 궁핍한 생활은 월소득 200만원 남편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사교육을 선호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여 자녀를 돌보고 있다.

<피자가게, 아내의 불만>

아내: 남편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 전에 직업이 많이 힘들니까 본인이 힘들어하니깐 한번 바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바꿨어요. 근데 생각만큼 일이 안 되니까 같이 하다가 나갔고요. 다시 본업 일을 하게 됐고. 제가 여기 일을 하게 됐죠. 원래 남편이 하고 나는 밖에서 일하겠다 했는데 거꾸로 되어 버렸죠.....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제하고 나도 적자예요. 지금은 저는 이것을 빨리 팔고 싶는데 잘 안 팔리고.....남편의 직업상 노후가 보장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잘 되고 할 만하면 나이 먹어도 상관없는 내 일이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비전 있는 곳이 못되니까.....차차리 나가서 내가 월급쟁이 5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지금 이 가게 있는 것보다는 돈이 남겠다고 생각을 해요.

<취업모, 영유아 양육의 어려움>

아내: (회사 다니던 시절)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집에 가서 애를 봐야 돼. 나는 정해진 8시간 내에 내 일 다 할 수 있어요. 7시간 내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더 많은 시간을 너는 일 없어도 좀 해라 이거예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 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애를 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내: 그게 너무 부담이여 가지고 (친정)엄마도 빨리 퇴근해서 애 봐라. 이거. (친정)엄마도 엄마생활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삼중고가 되어 버린 거예요. 애 봐야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지 (친정)엄마 스트레스 받지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청소년 자녀 양육의 어려움>

아내: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지금 모르겠다 싶은데 고등학교에 가면 돈 덩어리겠다는 거는 감을 잡았어요.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거보고. 그런 거보면서 진짜 중학교 때까지는 좀 덜 해도 고등학교가면 진짜 다 돈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그리고 욕하는 애들이 주변에 많고 또 여자 친구가 생겨요. 그니까 이성애 눈을 뜨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컴퓨터를 우연히 봤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몇 개의 주소가 있는데 모르고 클

릭을 했는데 눈뜨고 못 볼 환경이 보인 거예요. 아 애가 지금 벌써 야동을 보나? 너 무 충격 먹어가지고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어제 2시 반까지 얘기 했거든요. 12시부터. 지금 애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몰라요.....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프죠. 남들 안 하는 고민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가 제가 당장 했던 말은 뭐였나면 이제는 애들이 커서 엄마 말 듣지 않는다. 엄마 말 무시한다.

4) 사례 간 유사점

(1) 일-우선 생활구조

여섯 가정의 사례에 드러난 첫 번째 유사점은 바로 일 우선 생활구조이다. 사례가정 1은 조사시점에 이미 아내의 상대적 고수입을 통한 가계수입 안정화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사례가정 2는 남편의 안정적인 직장과 일정한 수준의 수입으로 안정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주 부양자의 생활시간은 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배우자도 그 시간의 조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부 부양자인 사례가정1의 남편이나 사례가정2의 아내도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조정할 생각이 없다. 자녀양육은 부부의 일 위주의 생활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수행하고 추가적 시간활용이 불가능할 때 자녀출산을 연기하기도 한다.

비정규직-정규직 맞벌이 부부인 사례가정 3,4는 부부의 근로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양육이 불가능할 때에는 친족의 도움을 얻고자 같은 지역 내에서 자녀와 주중 5일동안의 별거, 다른 두 개의 지역에서 길게 1년 동안의 별거도 수용하였다. 자영업을 하는 가정 5와 6은 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가게 개점 시간을 야간과 주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 엄마가 아빠와 저녁시간에 교대하고 귀가하여도 자녀를 위한 시간 혹은 가족휴식은 절대량이 부족하다. 주 부양자의 근무지 변경이나, 주 부양자의 주말 근무 및 주말 야간근무도 비판없이 수용해야 하는 사례가정들은 자녀양육을 어떻게 수행할지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간다. 최악의 경우, 부 부양자인 한 쪽 배우자의 일 단축과 중단 혹은 근무지 변경 등 일 변경을 통해 자녀양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 우선 생활구조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에서 화폐소득의 중요성이 훨씬 커져감을 의미하며, 그 때문에 부부의 총시간을 임금노동에 많이 할애해야 하고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드는 시간을 감축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결같이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자녀가 TV나 게임에 중독되거나 친구와 그릇된 방식으로 어울릴까봐 걱정하고 충분한 영양섭취와 생활습관형성, 학습지도에서의 부족함이 있으리라고 불안해 한다.

혹실드(2001:329-346)는 맞벌이로 인해 자녀에게 할애되는 시간의 축소를 막기 위해 사적으로 부부가 다 ‘집안 일’을 우선시할 것과 공적으로는 보육정책과 국가지원정책 그리고 근무형태 변화를 포함한 공공정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일 우선으로 시간을 할애해야 가족의 생존이 가능한 근로빈곤층의 경우에도 부부의 노력은 유효할 것이나, 공적 지원의 중요성은 더 비중이 크다고 하겠다.

(2) 일-가정생활 균형, 가정단위 균형과 개인의 균형간 모순

사례가정의 일-가정생활 균형은 화폐소득을 벌기 위한 시간과 자녀양육과 일상적 생활유지에 필요한 가사노동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일-가정 양영역에 대한 가정의 기대수준은 자녀의 연령과 수, 배

우자의 소득과 부부의 생활표준에 따라 가정마다 상이하다.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가정의 다양한 일과 가정생활 모습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가정단위의 균형을 위해 개인이 생각하는 일 가정 균형이 깨지거나 개인이 생각하는 일 가정 균형을 위해 가정단위 균형이 깨진다는 것이다.

사례가정 1은 일에 몰두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자녀양육시간이 부족하며, 사례가정 2는 남편의 직장동료와 어울림과 종교활동으로 아내가 원하는 만큼 부부관계에 쏟는 시간이 부족하다.

사례가정 3은 계속 일하고 싶은 아내가 자녀양육과 출산을 위해 일을 중단해야 한다.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해 아내가 일에 대한 요구를 접는 것이다. 비정규직 아내의 노동생애주기는 일과 가정을 번갈아 가면서 단절과 지속을 반복한다.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면서도 남편은 가족생존을 위한 소득확보와 일자리안정을 위해 주 64시간의 일을 수용해야 한다.

고시공부를 계속하여 고소득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자 했던 남편(사례가정4)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공부를 중단하고 낮은 소득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수용하였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양육을 하고 싶은 아내는 가계수입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일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아내의 근무지가 바뀌면 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은 대 변동을 겪어야 한다.

사례가정 5의 아내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알맞은 번듯한 직장 일'을 하고 싶지만 그 동안의 경력단절과 인적자원을 향상시킬 여지부족으로 자영업자의 파트너로서 살아야 한다. 크게 원하지 않는 자영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쏟을 시간부족을 감내하고 있다. 사례가정 6의 아내는 계속 일을 하고 싶지만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없고,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수입 제로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도 못하고 집에 가서 자녀들을 돌 볼 수도 없다.

5) 사례 간 차이점

여섯 가정의 사례에서 크게 차이나는 두 가지 측면을 발견하였다. 가족전략을 재무전략과 자녀 출산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사례 가정의 재무전략과 자녀 출산 양육 및 교육 전략>

구분	재무전략	자녀 출산, 양육, 교육 전략	부부간 일치
일, 계속하기	사례가정 1 - 아내의 상대적 고소득 - 남편의 상대적 저소득 - 양가 어머니 장사 그만두게 할 정도의 소득 희망 - 아내의 진학, CEO되기	- 출산연기 - 지역아동센터 통한 양육, 아내 직장 교육 프로그램 활용 - 부부간 분담, 아내가 더 많이 - 교육에서 인성 강조 - 아내가 자녀 돌보기 쉬운 거리로 이사	- 공익적 삶에 대한 일치 - 남편의 사교생활 불일치, 체념
	사례가정 2 - 안정적 남편 소득 - 아내의 부수입 - 주거이동(지출증가계획) - 시어머니 빚 갚기(-)자원	- 전업주부로 학령전 자녀 돌보기 -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취업 - 남편의 유연한 근무스케줄로 초등저학년 자녀 돌보기, 그러나 불안전, 불안. 인성강조 - 학원보내기, 적극적 투자	-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족 (성, 남편의 취미생활 등)
자녀와의 별거	사례가정 3 - 주택구매 1순위 - 남편의 기숙사 생활로 생활비 절감 - 맞벌이 절대 필요 - 주거비 등 모든 생활비 절약 - 취업 지속 위해 임신 사실 은폐	- 초기, 아내의 경력 단절 통한 영아 양육 전담 - 유아기 진입하자 친정어머니 통한 장거리 양육 - 유치원 시기에 동거회복 - 둘째아 출산, 전업주부로서 영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생 돌보기	- 부부간 분업에 대한 완벽한 일치와 배려. 남편의 주말 사교적 스케줄에도 동의
	사례가정 4 - 주수입원으로서 아내 일 절대 필요 - 지출극소화(시모, 무료 양육)	- 출산을 통한 발령지연 고려 - 주간 어린이집과 야간 시어머니 활용 - 주말에 집으로 데려와 돌보기	- 주부양자인 부인 일 우선에 부부 일치. 아침 운동 일치. 주중 분거 중 자녀 돌보기 남편 분담 일치
자영업 파트너	사례가정 5 - 수급권불법유지 - 정부지원 활용 - 남편의 장사 재능 활용 수익성 높은 일로 전환 - 부인 통한 인건비절약	- 아이돌보미 활용한 세 자녀 돌보기 - 인성 강조	- 종교적 일치, 순종적 아내 - 부인 소위 사회적 '일' 좌절, 남편이 아내의 외부 취업 원치않음
	사례가정 6 - 남편, 정기적 소득유지 - 자영업 시도(실패) - 주거비절약	- 지역아동센터 통한 자녀돌보기 - 사춘기 자녀에 대한 고민. 대책설정 곤란	- 종교적 불일치

위의 표는 재무전략과 자녀 출산, 양육 및 교육 전략에서 사례간 차이로 드러난 가족전략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두 측면에서 가족전략의 특성은 적극 대처와 수동 대응으로 드러났다.

(1) 적극 모색

사례가정5는 탈수급을 목표로 하여 남편의 개인재능을 활용한 극단의 노력, 자영업에서 아내가 소위 사회적 노동을 포기하고 남편의 파트너로서 일하는 부부간 분담을 수용하고 있다. 이 가정은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 등 국가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편법 이용한다. 사례가정3은 맞벌이를 지속하고 자녀를 해외연수, 캠핑카를 활용하는 주말 여가 등으로 구성된 삶을 살도록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가정은 높은 주거 표준을 이미 달성하였고, 그 빚을 갚기 위한 생활수준 낮추기와 부모로부터 무이자대출 등을 활용하였다. 과거 남편의 기숙사생활이나 꼭 부모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유아시기 자녀와의 별거를 통한 맞벌이로 수입을 극대화하였다. 이 가정의 적극성은 추운 겨울의 난방비 절감 등 온 방면의 생활비 감축과 임신사실을 7개월까지 은폐하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사례가정 4도 맞벌이가정이 되고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녀를 시어머니가 주중에 무료로 돌봐준다. 이 세 가정 3,4,5는 일반 맞벌이가정인 사례가정1이 부인의 진학, 남편의 승진을 도모하고 사례가정 2가 영유아기 양육을 끝내자마자 아내가 취업하여 소득 pool을 극대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이다. 이 범주의 가정은 부부간 가족전략이 일치하거나 적어도 한 쪽이 개인적인 의견을 접음으로써 전체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출산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가족전략에서 적극 대처를 보인 사례 가정들은 일정한 수준의 육아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출산을 조절하거나(사례가정1), 몇 가지 사회적 자원을 조합-사례가정 1, 지역아동센터와 학원 및 엄마직장의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 활용하고 부부의 시간을 할애하였다. 사례가정2도 사교육비부담을 줄여지면서 아내의 부수입을 보태어 학원에 보내기, 주말 아내가 시간을 할애하여 자녀들을 도서관에 데리고 가기, 남편이 자녀들 학교에 찾아가기 등을 특징으로 한다. 사례가정 3과 4는 교육의 필요성이 덜한 양육기에 친족의 도움을 활용하다가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부모가 직접 자녀를 더 많이 양육할 계획이다. 사례가정4는 지금도 주중 별거양육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데 주말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 수동 대응

사례가정 6은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했던 피자가게가 수익성이 낮고, 남편이 원래의 직업에 더 몰두하면서 아내는 현상유지조차 되지 않는 피자가게를 떠 맡아 의미없는 생활 - 과도한 시간투자와 제로 수익 - 을 하고 있다. 성공적인 자영업을 위한 금전적, 비금전적 가족 밖 자원 활용이 보이지 않는다. 피자가게가 처분되기를 막연히 기다리면서 아내의 인적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소모되고 있다.

자녀와 관련하여 보이는 수동 대응은 맞벌이 가정 모든 사례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점에서 드러난다. 경쟁사회에서 중산층 전업주부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금전적으로나 시간상으로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체념하면서, 학력에서의 수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체계적인 학습지도의 개념도 결핍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나 아이돌보미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에 만족

해 하고 있으며, 저녁시간에 방치되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불안이나 방학 때 간식과 저녁식사를 주지 않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다.

사례가정5는 아이돌보미의 도움을 이상화하고 있으며, 사례가정6은 지역아동센터의 존재자체에 감사하고 있다. 학습지교사이면서 야간 피자 가게 운영에 시간을 내야하는 남편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학습지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남편의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을 아내는 잘 알고 있다.

한경혜(1990, 120)에 따르면 가족전략이라는 개념이 가족내 전원이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반드시 의식적,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는 것도 아니다. 가족내의 개인의 위치에 따라, 세대 간에 또한 성별에 따라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사회상황과 연결되어 어떻게 조정되느냐 그 자체가 가족의 전략적 반응을 분석하는데 귀중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사례간 차이의 분석에서 보이는 가족전략의 적극 모색은 맞벌이 가정이 근로를 수단으로 하여 희망을 견지하면서 자기 가족만의 목표를 세우고 합목적적인 조절을 해 나가는 면을 보여 주는 반면, 수동 대응의 측면은 그러한 노력의 한계, 자원의 한계에 부딪혀 가족이 어떻게 좌절하고 체념하며 정당화하는가를 보여준다.

4.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를 적용하여 다양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생활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일-가정생활을 조정해 가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중산층 소득을 가진 안정적인 일자리의 부부 이미지를 맞벌이 가정으로 상정하고, 자녀양육과 가사활동을 위한 가정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터의 '가족친화적 조정'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생계필요에 의해 일하는 근로빈곤층 맞벌이 가정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여 다양한 논의를 확장하였다.

먼저, 근로빈곤층 맞벌이 가정의 일과 가정생활은 다양각색이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남편과 취업과 중단, 재취업을 반복하는 아내들로 된 가정에서는 자녀양육의 주요 책임을 아내가 맡았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남편과 전업주부 아내 가정도 자녀양육 책임을 아내가 전담하지만 보다 궁핍하였다. 반면, 불안정한 일자리의 남편과 정규직 아내의 가정생활운영은 전통적 남녀 성별분업 유형을 따르지 않았다.

기혼여성 취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 가정은 다른 부부들에 비해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점은 일과 가정의 경계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하는데 그 때문에 자녀양육과 가업을 쉬거나, 아내가 자신의 소득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따로 확보하기 어렵다.

자녀의 가정생활은 엄마가 전업주부로 지낼 때, 그리고 할머니가 돌봐줄 때가 아니면 혼자있거나 형제 자매와 있게 되었다. 부모가 모두 일하는 시간에 자녀들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혹은 아이돌보미의 가정에서 머물러야 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때로는 1년씩 짧으면 일 주일에 오일은 할머니 집에서 보낸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짧으며 부모의 휴식과 맞물리는 시간으로서

적극적 여가는 어렵다.

또한 근로빈곤층 맞벌이 가정이 일과 가정생활을 어떻게 조정하는가를 보면, 일 에 시간을 우선 배분하지만 이 것도 궁극적으로 가정생활을 유지를 위해서이다. 한 사람 수입으로는 어려운 가족의 생존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일 우선으로 시간배분을 함으로써 일터의 가족친화적 제도를 활용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 가정생활도 일에 중속시켰는데 그 때문에 자녀양육시간 부족을 초래하였다. 자녀를 위한 일 중심 시간배분이면서 동시에 자녀돌봄이 부족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자녀양육기 특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폭의 근로시간의 조정 혹은 일 그만 두기, 친족의 도움, 아이돌보미와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공적 지원체계의 활용, 사교육기관의 활용을 조합하였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다양성이 부족한 자녀양육지원체계로 인해 조합과정에서 드러난 주체성과 능동성은 제한적인 것이다.

따라서 조정과정에서 가정단위 일-가정 균형과 개인의 일-가정 균형간 모순이 발생하였다. 가계 총소득 증가를 위해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인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고 싶은 부부에게 적절한 일은 찾기 어려웠고, 가정생활에 시간을 더 배분하고 싶은 남편의 가정생활 포기, 일에 시간을 배분하고 싶은 아내의 일 포기는 일반적이었다.

모든 사례를 놓고 볼 때 재무관리와 자녀 출산 양육 교육에서 보이는 가족전략은 적극 모색의 측면과 수동 대응의 측면이 사례 간 차이로 드러났다. 적극 모색에서는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맞벌이 가정의 능동적 행위성이, 수동 대응에서는 자원제약에 따라 좌절·포기·체념한 결과로 보이는 행동 특성이 파악되었다. 특히, 그 동안 계층상승의 통로역할을 하다가 갈수록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된 교육에서 근로빈곤층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 건강한 공교육에 대한 기대 상실 등 수동적 대응의 자세를 보이고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정당화만 하고 있다. 근로를 통해 생존전략을 견지하려는 능동적 행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중심에 이들 계층에게는 일자리 안정성과 소득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의 근로시간과 여건에 상응하는 양육지원정책과 교육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 ; 첫째,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일 특성과 가정특성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안정되고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가진 중산층 맞벌이 가정과 불안정하고 저소득을 받는 근로빈곤층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논의는 다르게 전개되어야 한다. 전자는 일터의 유연성에, 후자는 일자리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사회 일-가정 양립에 대한 논의는 다소 중산층 편향성을 띠었다고 하겠다.

근로빈곤층 맞벌이 부부는 시간생산성이 가정영역에서보다 일 영역에서 보다 높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가정생활유지에 보다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자영업자 지원 - 취업·재취업·전업주부·재취업을 반복한 기혼여성의 창업실패를 볼 때 성공적인 자영업을 위한 컨설팅에 접근하는 것은 중요 -은 근로빈곤층 일-가정 양립논의에 필수적이다.

둘째, ‘부부의 시간 재 배분을 통해 자녀양육 요구를 먼저 해결하고 그 보완적 성격으로서 고안된

자녀양육지원책'은 개편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보았듯이 부부가 일-가정 양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녀를 분리하여 가정생활 일부를 희생하기도 하고, 취업한 아내가 경력을 단절해가면서 자녀를 돌보기도 한다.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어린 자녀와 함께 살 수 있고, 또 일도 계속할 수 있도록 각 계층 맞춤형이 가정의 다양한 출산과 양육 상황을 고려한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의 수용자인 개별 가정의 시각을 반영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그 수행을 위한 시간과 활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며 그러한 책임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시간 안배와 확보 및 지원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선미(2005), 맞춤형이 부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질적 연구-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춤형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9(3),17-29
- 한경혜(1990) 산업화와 결혼 연령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가족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제24권. 103-120
- 혹실드, 알리 러셀 저(2002, 백영미 번역). 맞춤형이 부부의 가사분담 이야기:돈 잘 버는 여자, 밥 잘 하는 남자. 아침이슬
- Creswell,J.W.(2010).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조홍식 · 정선욱 · 김진숙 · 권지성 역). 학지사. (원저 2007년 출간)
- Lincoln, Y.S., & Guba, E.G.(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Newbury Park,CA.
- Stake,R.(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Sage Publications:Thousand Oaks, CA.
- Yin, R.K.(2011). 사례연구방법(신경식 · 서아영 역). 현경사. (원저 2009 출간)

근로빈곤층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과 가족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김 소 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먼저, 기존의 일-가족 양립/균형 연구 및 논의에서 경제적 계층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불안정한 고용지위와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등을 경험하는 ‘근로빈곤층’ 맞벌이 가정에 초점을 맞춰 일과 가정의 균형과 대처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는 현재 한국의 일-가족 양립 논의와 정책이 계층별 상황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기존 논의를 한 걸음 진전시키는데 기여할 기초자료로서 큰 의의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맞벌이 가정의 부부를 모두 심층면접하여 개별 가정이 일과 가정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부부가 어떠한 협상과 조정을 하며, 어떠한 대처전략들을 선택하는지 등을 연구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연구함에 있어 부부 중 한쪽의 입장에서 그 가정의 일과 가정생활을 살펴봄으로써 맞벌이를 하는 아내와 남편 각각의 일터의 조건과 상황, 가정 내에서의 역할, 개별 요구와 그에 대한 조정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례가정 부부 모두가 참여해 각자의 노동생애사와 현재의 노동조건, 일과 가정생활의 조정과정 등을 비교적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가족의 요구와 개인의 요구라는 두 측면을 고려해 근로빈곤층 맞벌이 가정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정해 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근로빈곤층 맞벌이 가정의 경제사회적 자원 제약 상황에서 가족요구와 개인요구가 대치되는 지점을 포착해 낸 부분이 흥미로웠다.

선행 연구들은 직장의 장시간 근로관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실태를 지적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해결점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에게는 소득보장이 곧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들은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휴직 등 가족친화적 제도 활용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활용가능한 공적·사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은 남편의 가정생활 포기, 일에 시간을 배분하고 싶은 아내의 일 포기 등 가정단위 일-가정 균형과 개인의 일-가정 균형 간 모순 지점들이 연구를 통해 발견되었다.

향후 연구가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의 목적과 대상 등 연구배경에 대한 보다 충분한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 우리사회의 구조적 맥락에 근거한 한국적 정책모델의 기초자료를 제시한 연구가 드물다고 지적하며, 본 연구는 자녀양육기 맞벌이 가정을 단위로 일상적인 삶 속의 협상과 조정과정을 다루어 그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대상 역시 비교적 연구에서 소외되어 온 근로빈곤층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보다 설득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좀 더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현재 노동시장과 일터의 조건들은 어떠한지, 본 연구에서 근로빈곤층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된 사람들을 의미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된다면 연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광주라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도 함께 언급되어야 연구참여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개별 가족의 일과 가족 균형을 분석할 때 경제적 자원과 필요의 측면뿐 아니라 젠더의 관점도 고려된다면 개인단위와 가족단위의 복잡한 경합과정이 더 잘 그려질 것으로 생각된다.

근로빈곤층은 가계소득보장이라는 중요한 가족목표를 고려하며 일과 가정의 균형점을 찾으며, 그로 인해 개인의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한다(예를 들어 남편의 아이돌보기 시간 부족 등).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보다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사례 1, 2로 대변되는 중산층 가정들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 가족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라는 의사결정에서 경제적 자원보다는 고정화된 성역할 관념, 준거집단의 영향력 등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계층의 영향과 효과를 보다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맞벌이 가정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그를 위해 비교군으로 중산층 맞벌이 가정 사례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연구 결과에서 계층에 따른 차이나 계층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유사한 경향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크게 부각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 개별 사례들을 제시한 부분에서는 일부 보이지만 사례 간 유사성과 사례 간 차이점을 분석한 부분에서는 계층을 고려한 분석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결론에서 기존의 논의들이 중산층 맞벌이 가정을 표준모델로 상정한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분석 내용, 특히 사례 간 분석과 대처 전략 부분에서 계층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기술과 해석이 요구된다.